

전남 동부권

여수 금오도 비렁길 조성후 관광객 4배 급증
해상항로·인프라 확충 시급

여수시 금오도에 조성된 '비렁길(사신)'을 찾는 관광객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각종 규제...

업체들이 기득권을 주장하며 반발함에 따라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업계의 한 관계자는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사실상 독과점...

만5950명, 지난해 31만9953명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이 향로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여천항에서 '비렁길' 출발지인 함구미 마을까지 5km를 도보나 택시...

탐방객 48% "교통 불편이 가장 불만"
규제 묶여 식당·숙박업소도 태부족



관광객들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 사항은 교통(17.8%), 먹거리·식당(16.7%), 숙박(12.2%), 체험활동(11.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가장 많은 47.9%가 불만이라고 응답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해상항로 확충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시일내에 향로를 증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비렁길'을 찾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가~여천 노선의 경우 지난 2009년 11만여명에 불과하던 이용객이 '비렁길'이 조성된 2010년에는 14만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24만명을 넘어섰고 올해는 3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금오도 관광객도 2009년 7만8885명에서 2010년 9

여수시 관계자는 "관광객들의 쏟아지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육지와 '비렁길' 구간을 직접 연결하는 해상항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식당과 숙박시설 확충도 국립공원 지역이라는 장벽에 막혀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금오도 대부분이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에 속해있어 상업시설 목적이 다른 슈퍼마켓, 식당, 숙박업소의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비렁길' 구간엔 식당이나 숙박업소를 건립하려면 이들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

여수시는 최근 '비렁길' 코스내 장지마을에 소재한 폐교를 활용해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려 했지만,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마저도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온 상태다.

여수시 관계자는 "국립공원 보호라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비렁길'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광양 전어축제

7~9일 망덕포구

'광양 전어 향토문화축제'가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광양시 망덕포구 전어잡이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천황에서 '비렁길' 출발지인 함구미 마을까지 5km를 도보나 택시...

식점을 개설, 저렴한 가격으로 전어를 맛보도록 했다. 매년 가을철이면 섬진강 물결이 광양만과 합류하는 망덕포구와 바다와 광양만 일대에서 전어잡이가 성행한다. 전어잡이 과정에서 어부들이 부르는 '전어잡이 노래'는 가락이 구성되고 애잔하면서도 흥겨우며 지난 1998년 '남도문화제'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추진위원회 정현천 위원장은 "올해 축제는 120년 역사의 망덕포구 명성을 되찾고자 모두가 고심해 준비했다"며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찾아 가을철 별미인 전어도 맛보고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순천 국밥축제

8일 웃장 일대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밥축제가 순천에서 열린다.

순천시는 전통시장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8일 순천웃장 국밥골목 일원에서 '순천웃장 국밥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들이 직접 돼지머리 뼈를 바른 후 수육을 썰고, 국밥을 맡아보는 과정을 통해 단순히 먹고 마시는 축제가 아닌 몸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상인 노래자랑과 사진전, 골동품 전시, 국밥의 효능 세미나, 국밥 고유 브랜드와 워크숍 등이 함께 열린다.

순천시는 저렴한 가격과 푸짐한 양으로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순천 웃장 국밥'을 브랜드화 하고 내년에 개최될 정원박물관 관광객을 윈도

심으로 연계할 수 있는 먹거리 콘셉트로 만들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9와 8의 어울림 발음에서 착안해 9월 8일을 국밥데이(98 day)로 정해 축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순천웃장 국밥은 일반 국밥과는 달리 돼지창자(곱창)를 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돼지 삶은 머리에서 발라낸 살코기만을 재료로 사용함으로써 국물 맛이 깔끔하고, 뒷맛이 개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6000원짜리 국밥 2인분을 주문할 경우 수육 한 접시를 무조건 제공하는 등 저렴한 가격과 맛, 푸짐한 양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웃장 국밥골목은 지난 7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전국 음식 테마거리 2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태풍피해 농가 일손 돕기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 대원들이 6일 여수시 소리면 죽림리 상금마을에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진해를 치우고 있다. 또 화양면 피해농가를 방문해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낙과를 수거하는 등 농민들과 함께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수소방서(서장 박달호) 대원들이 6일 여수시 소리면 죽림리 상금마을에서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해 파손된 비닐하우스 진해를 치우고 있다. 또 화양면 피해농가를 방문해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고 낙과를 수거하는 등 농민들과 함께 피해복구 봉사활동을 펼쳤다. <여수소방서 제공>

고흥 특산품 日 가시마시 전시 판매

고흥군 대표적인 특산품이 일본 가시마시에서 전시 판매되고 있다. 고흥군은 일본 사가현 가시마시 관광 및 물산관매시설인 '길의 역 가시마'에 '전남도 고흥군 안테나수'를 지난 11월 24일부터 전시 판매하게 됐다.

그동안 가시마시 민간교류단 '포럼 가시마' 회원 12명이 지난 7월 열린 '2012 고흥 선정 머드림' 참가를 계기로 관내 특산물 생산업체인 한성푸드, 명천바다 해초마을, 죽암 F&C 및 단담의 광장 특산물 판매장을 방문, 국제적 안전성이 검증된 품목을 사가현 진흥협의회를 거쳐 사가현 직매장

8개소에 전시 판매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고흥군과 일본 가시마시는 지난 1997년 1월 우호결연을 통해 양 시·군의 고흥 군민의날, '선정 머드림', 일본 '가시마시 가다림' 등 행사에 인적교류를 해왔다. 또 2011년부터 경제교류 논의를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특산물 전시 판매가 이뤄졌다. 고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유대를 가지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직수출을 할 수 있는 물량으로 확대해 양 시·군의 교류증진을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주길중기자 gju@

전 북

순창군 가남·인계·풍산 농공단지

분양률 91%... 지역경제 활력

순창군 지역경제가 가남·인계·풍산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인해 활력을 되찾고 있다. 6일 순창군에 따르면 대상주식회사 순창공장, 사조산업, 한국C&T(주) 순창 방직공장 등이 군내 농공단지 입주해 지역민을 고용하면서 제품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군은 1987년 가남 농공단지를 시작으로 2004년 풍산 농공단지, 2007년에 인계 농공단지를 차례로 조성했다. 또 지난 8월에 쌍암 농공단지를 준공했으며, 내년 12월에는 풍산 제2농공단지를 준공할 예정이다. 총 5개소에 이르는 농공단지 조성 면적은 65만4199㎡이며, 현재 분양률

은 91%에 달해 순창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순창군에 산업단지 수요가 늘어나게 된 것은 국도 27호선의 확장 개통과 더불어 88올림픽 고속도로 확장공사가 추진되고 있어 남부지역의 투자적 지인메다 산업용지가 저렴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황숙주 군수는 "5번째로 조성되는 풍산 제2농공단지에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게 되면 순창군의 산업구조가 바뀔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남원시 지리산 둘레길 팸투어

남원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코레일(KORAIL) 전북본부 임직원 30여명을 초청해 '지리산 둘레길'에서 '힐링'(healing = 치유)을 주제로 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남원시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근 코레일(KORAIL) 전북본부 임직원 30여명을 초청해 '지리산 둘레길'에서 '힐링'(healing = 치유)을 주제로 한 팸투어를 실시했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단 신

생물자원관 '전주 물꼬리풀' 증식 성공

국립 생물자원관은 멸종위기 1급 야생식물인 '전주 물꼬리풀'을 대상으로 증식하는 데 성공했다. 전주물꼬리풀은 멸종위기 2급으로, 전주에서 처음 발견됐으나 현재 자취를 감췄고 제주도에만 일부 남아있다. 생물자원관은 제주도에서 채취한 종자를 재료로 90% 이상 발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개발, 2만 포기를 생산해 증식 중이다. 생물자원관 관계자는 "자생지 복원사업을 할 계획"이라며 "맛있는 증식기술을 개발해 식물 자생지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시립합창단 '가을의 클래식' 연주회

군산 시립합창단은 7일 저녁 7시 30분 시민문화회에서 '가을의 클래식'(Classic of Autumn)이라는 주제로 정기연주회를 연다. 이날 연주회는 지휘자 강기성의 알찬 해설을 곁들여 '밤의 고요속에서' 등 대중음악과 클래식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음악이 무대에 올려진다. 또 남성합창·여성합창·혼성합창 등 다양한 레퍼토리 구성과 화려한 안무가 연출되며, 소리꾼 김홍업이 들려주는 구성진 우리의 소리와 성악가들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대조를 이룬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

남원시 지리산 허브밸리 사진 콘테스트

남원시는 7일부터 9일까지 운봉읍 용산리 허브밸리에서 열리는 '허브&블랙푸드 페스티벌' 기간동안 디지털 사진 콘테스트를 갖는다. 이번 사진콘테스트는 지리산 허브밸리를 배경으로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을 간단한 작품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응모하면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당선작을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당선 작품은 금상 1명·은상 2명·동상 4명이며, 카메라·PMP 등을 경품으로 줄 예정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자 bs8787@

김제시 '고품질 브랜드쌀' 대비 협의회 구성

김제시는 최근 2012년 전국 '고품질 브랜드쌀' 평가에 대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했다. 시는 현장평가에 대비해 ▲계약재배 농가관리 재배 매뉴얼 이행여부 점검 ▲생산시설관리 ▲브랜드 품질관리 등 3개 부분으로 나눠 준비하고 있다. 한편 김제에서 생산된 '무농약 지평선쌀', '방아짚는날 골드' 등 2개 브랜드와 공덕농협의 '상상예찬 골드'는 중앙평가에서 '러브(Ilove)미(米) 인증을 받았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가을의 전설, 내장산'

10월 16일부터 두달간 기획특별전

'내장산'을 주제로 한 특별한 전시회가 정음에서 열린다. 정음시와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 내장산은 오는 10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개월간 정음 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가을의 전설, 내장산'을 연다. 이번 전시는 2번째 기획특별전으로 내장산의 자연적·역사적·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내장산 단풍을 주제로 한 시와 소설, 그림, 사진 등 200여점을 선보인다.

▲보물(조선왕조실록과 여진, 전통사찰, 문화유산) ▲추억(시민들의 일기장·기념품) 등 5부로 나눠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는 시민들의 추억이 담긴 사진과 엽서, 책갈피 등을 출품받아 시민과 함께 하는 전시연출로 이뤄진다. 박물관 전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5일까지 참여신청서를 작성해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문의(063-539-6792).

이번 전시는 ▲노래하다(내장산에 깃든 전설, 시·수필·노래 등 문학작품) ▲그리다(화화 및 공예작품) ▲물들이다(옛 사진·영

향전 전시기간 중에는 내장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공동개최하는 '제12회 내장산사랑 그림대회'도 열린다. /전북취재본부=박기범기자 parkks@

군산시 인구 50만 국제도시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수립

오는 2020년 군산시가 인구 50여만 명의 국제 관광·기업도시로 도약한다. 군산시는 최근 세계경제와 국가 주요정책 및 지역내 국책사업 등 변화 요인을 새남금 종합 개발계획과 연계해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시는 계획인구 52만명의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 대해 오는 12월 오후 2시 청소년수련관 2층 강당에서 공청회를 가진후 관련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전북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이번 수립된 기본계획은 군산의 미래상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기본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

전을 위해 군산시 미래상과 도시공간 구조를 점검하고 토지이용 계획의 변경과 정책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계획(안)은 '해양과 더불어 성장하는 국제관광·기업도시, 군산'이라는 계획기조에 따라 ▲인문·사회·경제 부문에서는 동북아 교역을 활성화하는 동북아 물류 거점도시 및 지역경제 육성을 유도하는 첨단기업도시 ▲관광·문화 부문에서는 세계적인 해양관광을 선도하는 국제해양 관광도시 ▲환경 부문에서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면서 '국내를 벗어나 아시아에서 세계로 나가는 군산'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새남금 종합 개발계획 등 국토 및 도시공간 체계 변화에 따른 여건변화에 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정책에 맞춰 각 사업들의 유기적 연결을 통한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본틀을 마련한다. 또 도시공간 구조와 정주체계 확립과 도시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방향 등을 제시한다. 토지이용 계획의 경우 역세권·새남금 산업단지·군산 전북대병원·새남금 신항 등을 반영했으며, 도심 정제구간 개선대책 강구 및 도심과 새남금을 연결하는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등 기반시설 계획도 포함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안)은 군산 도시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식기자 nogusu@